

‘장애 극복 서사’가 은폐하는 것들



홍 경 안 의
시시일과

예술창작은 ‘극복의 산물’이 아니라 미학적 사유와 형식적 실험의 결과물이다. 장애 예술인의 작품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지니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예술인을 둘러싼 담론은 ‘극복’과 ‘감동’이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그들을 ‘극복의 주체’로 호명하면서, 더불어 두 가지 본질적 층위를 체계적으로 은폐한다. 첫 번째는 작품의 미학적 자율성(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작품의 예술성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독립성)이며, 두 번째는 창작 생태계의 구조적 불평등이다.

예술작품의 가치는 형식적 완성도, 개념적 심도, 미학적 혁신성에 의해 판단된다. 작가의 신체적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곧잘 ‘장애예술인의 작품’이라는 선형적 범주에 둔다. 작품보다 작가의 장애가 우선하는, 전도된 인식 체계이자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유형의 사례다.

전도된 인식체계는 작품의 예술적 성취

나 미학적·사회적 맥락을 가려버린다. ‘장애를 극복한 예술가’라는 식의 낭만화된 내러티브를 재생산하고, 예술가를 동정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편견을 강화한다. 더구나 범주적 오류는 장애예술을 사회·문화적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고립된 영역으로 한정하는 게토화(ghettoization)를 낳는다.

장애예술인이 직면한 창작환경의 불평등은 정책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물리적 접근성이 결여된 공연장과 전시공간, 턱없이 부족한 창작지원금, 보조인력 및 활동지원의 제도적 미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접근성의 취약함 등은 모두 시스템적 차원의 배제를 증명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장애예술 정책은 배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불평등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한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불안정성이다. 비장애예술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장애예술인의 다수 역시 생계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그들에겐 장애 관련 의료비와 이동 보조비용 같은 지출이 중첩된다. 전동 휠체어 한 대에 수백만 원이 소요되며(정부 지원 후에도 높은 자부담), 독과점 및 특수성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어려운 보조기기도 많다. 장애예술인 가족은 보조 인력 역

할을 하느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흔하고, 대체인력 고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물론 정책적 변화의 조짐이 없지는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국내 최초로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공간인 ‘모두예술극장’을 설립했고, 2024년에는 장애인 전용 미술 플랫폼 ‘모두미술공간’을 개관했다. 또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관련 예산은 약 291억 원으로 집계되어, 과거 대비 건설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운 지점은 있다. 지원은 대체로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어 있을 뿐 작품의 가치가 주류 예술계에서 동등하게 평가받는 구조는 미흡하다. 장애예술을 ‘동정과 배려의 대상’이 아닌 예술적 다양성의 한 축으로 인식하는 질적 전환 또한 요원한 것도 사실이다.

장애예술인과 관련해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재편의 동시 추구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작품의 미학적 자율성도 온전히 이뤄질 수 있다.

/미술평론가

기술 자립이 곧 국력, K-방산의 다음 좌표



기 지 수 첩
이 승 용
(산업부)

한국 방위산업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제 과제는 양적 성장의 끝에서, 기술로 완성되는 ‘K-방산’의 다음 장을 여는 일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II 같은 대표 무기체계가 연이어 해외로 나가며 방산 4사의 분기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든 성과이자, 제조업 수출의 새로운 축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수출의 호황이 곧 산업의 건강함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의 방산은 완제품 중심의 ‘조립형 산업’에 머물러 있다. 무기는 나가지만 기술은 여전히 빌려 쓰는 구조다. K2 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은 독일 기술을 사용했고, 천궁 II 미사일은 국산 화물이 높지만 일부 핵심소자는 미국·유럽 산 부품을 쓴다. FA-50 전투기도 엔진은 미국 GE, 항전장비는 미국·이스라엘 기술에 기반한다.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술의 공백이 더 뚜렷해지는 이유다.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다. AI 전투체계, 무인 전력, 위성·데이터 기반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전쟁의 언어가 ‘철’에서 ‘코드’로 바뀌는 중이다. 한국은 여전히 하드웨어 납품에 강점을 지니지만, 지금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K-방산의 경쟁력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기업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한

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AI 모두 연구개발(R&D)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매출의 5~7% 수준에 머무는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 역시 2027년까지 국방 기술개발에 약 2조 원을 투입하며 AI 무기, 무인체계, 신소재 등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

수출의 성과는 이미 입증됐다. 이제 남은 것은 기술력과 생태계다. 단일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K-방산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

기술이 산업 전체의 언어가 되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미래전을 준비할 때 비로소 한국 방위산업은 진정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철의 산업’에서 ‘코드의 산업’으로 나아가는 길, 그 선두에 K-방산이 설 수 있다.

/lsy266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12일 (음 9월 2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오기를 부리거나 자존심을 심히 내세우면 적이 생긴다. 48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으니, 60년생 잠시 계획은 접는 것이 실패를 줄인다. 72년생 관음 기도를 해 보시라. 84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사랑과 측은지심이 있어야.



37년생 약진할 수 있는 운이다. 49년생 자살이 동하니 객지 밥을 먹게 된다. 61년생 상담이 잘되어 계약도 이루어진다. 73년생 병원은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85년생 종이 접이 싫으면 떠나야지 직장에 불만 일으키지 말아야.



38년생 옳은 일에는 주관을 확고히. 50년생 시작은 어려우나 결과는 있게 마련. 62년생 능력이 펼쳐진다. 74년생 고생 끝에 낙이 있는데 삶은 왜 이리 힘든 것인지. 86년생 생각했던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은 신용이 기초가 되니.



39년생 바깥수목 계획표를 다시 챙겨보라. 51년생 의외의 성과로 신난다. 63년생 두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는 것이 현명할 듯. 75년생 시간을 갖고 생각하니 금전유통이 이루어진다. 87년생 귀인이 찾아와 연인과의 혼사가 결정.



40년생 조상님 산소를 돌보니 뜻깊은 하루. 52년생 집의 이동으로 다소 복잡하나 발전적. 64년생 친구들과 정치 종교 얘기 나누다 다투지 마라. 76년생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음. 88년생 오늘은 멀리 있는 길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41년생 첫인상을 좋게 가지려면 시간약속 잘 지켜라. 53년생 식구에게 집착보다는 사회성을 키우라. 65년생 잘못을 지적하다 다툼이 예상. 77년생 대출받아서 하는 투자는 다음 날로. 89년생 일의 갈증이 따르더라도 급하게 하지 않도록.



42년생 오후에 손재주이나 차량 벌금 날아온다. 54년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66년생 조상님의 제사를 챙겨라. 78년생 의외로 귀인의 도움이 있으니 주위에 서조력을 구해보라. 90년생 애기하다 부부간에 불화가 발생하게 되니.



43년생 실수를 떠벌리는 것보다 조용히. 55년생 사돈에게 도움을 청하면 해결된다. 67년생 해외파견 근무를 신청하면 될 것. 79년생 재물에 공망이 있으니 매매계약은 서두르지 말라. 91년생 삼각관계 이성 간의 만남에서 망신 수가 있다.



44년생 작은 일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56년생 노후대비는 지금 시기부터라. 68년생 기다리는 것도 미덕이며 나를 성장시킨다. 80년생 재산상속은 앞일이 어찌면 어려워질 징조. 92년생 재물에 귀인이 동행하니 뜻대로 된다.



45년생 겉보기에는 이득이 있을 것 같으나 감언이설. 57년생 신발장을 정리하여 머리를 맑게 하라. 69년생 짧은 치마를 입는 것도 용기가 필요. 81년생 영업장의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93년생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복잡한.



46년생 옛 지인으로부터 편지가. 58년생 여행계획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70년생 부서를 옮기려다 구설수에 엮인다. 82년생 호사다마라 돈은 나갔으나 집안에 벌일은 없다. 94년생 내가 잘했다기보다 현재 위치를 생각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니.



47년생 집안 안전점검을 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삽으로 막지 마라. 59년생 마음은 있으나 지갑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71년생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83년생 오늘의 실력은 평소 노력에서 온 것. 95년생 희망이 존재하니 실망하지 말아야.



김상회의四季

풍수 한담 ①

풍수에 관한 관념은 뿌리가 깊다. 선조들은 천지자연에 기(氣)가 있다고 믿었고, 기는 단순히 지구 내에서만 에너지가 아니라 해와 달을 포함한 먼 별과 그 별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로부터의 기운이라 여겼다. 기운의 근본 요소는 지수화풍 地水火風 4대이고, 특히 지구는 이 4대 요소의 영향이 극명한 곳이라 사람들이 기의 성품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그 효용이 지대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陰의 기운은 음택으로, 陽의 기운은 양택. 음택은 죽은 자를 위함이니 묘지의 선정에 쓰임이 우선이고 양택은 산 자에게 효용이 큰 것이라 작게는 주택에서 시작하여 회사건물, 도읍과 궁궐터를 정할 때 유효했다. 풍수 이론상 길지는 지하에 수맥이 흐르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며 별이 잘 드는 곳을 말하니 음택 양택 양자 모두에게 통하는 기본이다.

산자가 좋아하는 곳이면 망자에게도 좋은 길지다. 그러나 산 사람에게도 좋은 터가 부족하니 망자를 위해 도심 한가운데 좋은 터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배수임산의 별 잘 드는 적당한 높이의 구름이나 임야를 찾을 수밖에 없다. 조선 시대는 유교 문화임에도 풍수적 길지에 묘터를 잘 쓴 가문들의 자손들이 흥성하고 입신출세하는 후손들이 많은지라, 돈 있고 명망 있는 세력이 가문들일수록 길지의 묘터에 애가 났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내놓으라 하는 기업을 일군 집안이나 정치적 야망을 품은 이들이라면 우선하는 일이 선산을 잘 꾸거나 좋은 음택지를 골라 조상 묘, 이전하는 일은 기본이다. 누군가는 이런 일들이 미신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얘기다. 수만 년을 두고 과학적, 경험적으로 공감되는 일이다. 너도나도 좋아하는 좋은 동네, 좋은 집터가 있는 것을 찾듯이. 음택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9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9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초·중·고·대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매슬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3	8	6
7					5			
	8						4	5
				6			7	
			8		4			
	5			9				
5	9						1	
			4					8
8	6	3				5	2	

		8	7	4		2		
					9			1
							3	4
								2
7						6		2
1								3
	3			7				1
6								
2	5	4				7		
				3		9	5	4

2	9	7	1	2	6	8	9	8
8	8	6	9	9	7	1	2	2
2	1	9	8	8	2	7	6	9
8	9	2	2	6	1	8	9	7
1	6	9	7	2	8	1	8	9
7	2	8	8	9	9	6	2	1
9	7	2	6	1	9	2	8	8
6	2	1	9	8	8	9	7	2
9	8	8	2	7	2	9	1	6

9	7	9	6	2	8	1	2	8
6	1	8	2	9	8	7	9	2
2	8	2	1	7	9	8	6	9
1	9	7	9	8	2	2	8	6
8	9	2	7	6	2	8	9	1
8	2	6	9	8	1	9	7	2
2	2	8	8	9	6	1	7	
7	8	1	8	2	6	9	2	9
9	6	9	2	1	7	2	8	8